

# 왜 표준전개인가?

**인문논술 최은식**

**이투스 인문논술 1타, 디오르비**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논술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 인문논술을 연구하고 있는 최은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 논술문 구조 설계, 즉 개요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 저 역시 논술러였습니다

저는 2009학년도에 수능최저 없는 논술 전형으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성격이 약간 요상해서 마음에 꽂히는 게 생기면 거기에 심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논술로 승부를 보겠다고 결심이 선 다음에는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논술 공부에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논술 수험생들의 논술 공부량이 6시간/일주일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과도한 투지였던 것이지요.

## 논술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렇게 논술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저를 가장 괴롭혔던 문제는 이 문제였습니다. “아, 이게 정답의 핵심 내용이구나.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제 글을 어떻게 쓰지? 800자나 되는데...” 논제 분석과 제시문 독해 등을 거쳐 정답을 이해하는 단계까진 잘 왔는데, 이제 몇 문단으로 쓰면 되는지, 첫 문단은 뭘로 시작해야 하는지, 첫 문단은 어떤 문장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 많은 강의와 책과 첨삭 선생님의 노하우를 탐색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여기 저기 질문해 봤지만, 두루뭉술한 답변이 많았고, 더 구체적인 지도를 요청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일단 한 번 써봐. 그러면 거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선생님이 점검해 줄게.”

## 시행착오를 통한 자기 스타일 완성...

많은 학생들이 첨삭을 통해 “아하, 이럴 땐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를 다양하게 확인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조금씩 다듬어 나가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자신만의 글쓰기 스타일’을 찾아나가는 것이지요. 자신만의 글쓰기 스타일을 정립한다는 것.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근본적인 정도에 가까운 방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교 유형 문제를 도대체 몇 개를 풀어봐야 비교 유형에 대해 수험적으로 안전하게 잘 다듬어진 ‘나만의 비교 글쓰기 스타일’을 만들고 숙달할 수 있게 될까요? 10개 정도 풀어보면 될까요? 더 많이 해야 할까요? 논술 유형에는 비교만 있는 게 아니지요. 분류, 설명, 평가, 대안, 논쟁에 대한 대응책은 언제 만들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도 논술의 기본적인 유형의 종류일 뿐입니다. 비교 중에서도 2:1 비교일 때는 어떻게 전개하면 좋을까요? 비교 쟁점 간의 연관성이 없을 땐 어떻게 전개하면 좋을까요? 비판 문제에서 여러 제시문이 하나의 판단 기준을 구성할 땐 비판 기준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들에 대하여 모두 시행착오를 통한 자기 스타일, 그것도 시험에서 통하는 안전한 자기 스타일 만들기를 할 수 있을까요?

## **그래서 표준전개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글쓰기를 정복할 시간이 3~4년 주어져 있다면,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어가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의 논술러는 평균적으로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일주일에 6시간 정도를 투자하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합격 수준의 답을 써낼 수 있는 숙련자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물론,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논술 또한 상대평가인 탓에 미숙련자들끼리 시험을 보는 경우들도 있겠지

만, 올해 반드시 붙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선 상대방이 못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표준전개를 만들었습니다. 시중에 공개된 선배 강사님들의 강의와 교재는 물론, 대학의 논술가이드북, 채점기준, 학술적 글쓰기 관련 교수님들의 논문과 저서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안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일종의 전형적인 전개방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지요. 이러한 조건별 전개방식을 익히면, 학생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논제의 조건에 따라 글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고, 전형적인 표현 방식을 고려하여 각 문항에 적합한 상세 개요를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한정된 논술 공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채점에 유리한 실전적 글쓰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터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 표준전개는 정답 중 하나일 뿐이지만

표준전개는 최고의 전개방식이거나, 당연히 유일한 정답의 전개방식이 아닙니다. 합격한 논술문이 10개가 있다면, 여기에 적용된 전개방식도 최소한 4개는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지, 형식이야 어떻든 잘만 쓰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기본기를 충실히 익힌 학생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들에서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한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표준전개를 지키지 않았어도, 기

본 원리를 잘 지키고 잘 이해되고 납득되는 글을 썼다면 칭찬을 아끼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술을 시작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개방식의 다양성을 구가하기는커녕 그저 뭘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하기만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일단 그냥 네가 쓰고 싶은 글을 써봐.”라고 무책임하게 얘기할 순 없습니다. 그 막막함이 논술 학습의 가장 큰 벽이라는 것을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처절하게 느꼈으니까요. 제가 배울 때는 “글쓰기란 게 원래 그런 거야.”라며 그냥 적응했지만, 제가 직접 오랜 시간 연구해 보니 그게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 논술 강사의 책무

논술의 가장 큰 적은 막연함, 막막함입니다. 몇 개월을 배워도 여전히 글쓰기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강사는 필히 이 막연함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독해를 했더라도 여전히 글을 어떻게 설계할지 막막하다면, 소위 ‘글빨’, 즉 재능이 높은 학생들만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될놈될’이면, 강사는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냥 소문에 떠도는 말처럼, 논술은 운빨 혹은 재능빨 시험일 텐데요.

저는, 논술 강사라면, “이런 조건일 때는 이런 식으로 써보렴. 이 방식은 지금과 비슷한 경우 대부분에 적용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거야.”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정석’을 알고 있어야, 학생들도 정석의 원리와 지침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들 속에서 최선의 판단을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을 겁니다.

## 논술은 학술적 글쓰기입니다

대입 논술은 학술적 작업, 즉 학문 연구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고, 학술적 저술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을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쉽게 말하면, 논문을 잘 쓸 것 같은 친구들을 뽑는 시험이지요.

그리고 논문, 즉 학술적인 글은 글쓴이의 개성 같은 것이 중요한 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작성한 논문이나 미국에서 작성한 논문이나 유사한 소통 원리가 존재하는 정형화된 글에 가깝지요. 논증과 설득의 원리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술적 글쓰기의 보편적 원리 안에서 각 대학의 지침을 담아 논제 조건에 따른 전형적인 전개방식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준전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표준전개가 여러분의 논술 실력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